

지역 제조업 3분기 연속 기준치 밑돌아 ‘암울’

광주상의, 기업경기전망 조시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제조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기준치=100)는 75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상승추세를 보였던 BSI 지수는 올해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

‘환율·물가’ 하반기 최대 리스크

민선 8기 경제 활성화 “기대 안해”

“지역 특화산업 최우선 육성해야”

상과 환율상승에 따른 제품가 불안정성 확대와 경기불황 우려까지 커지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분기 실적은 90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과 내수 및 수출입 부진 등으로 여전히 기준

치를 밑돌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업종별 전망은 IT·전기·가전(110), 기계·금형(100) 업종은 기준치를 웃돌았으나 식음료(67), 고무·화학(27), 유리·비금속광물(88), 철강·금속가공(47), 자동차·부품(58) 등의 업종은 기준치에 훨씬 못 미쳤다.

기업 규모별 전망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3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제조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감소가 우려되면서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기업과 내수 기업은 각 70과 75로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와 생산원가 상승, 내수 위축 등을 우려했다.

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6곳(60.7%) 이상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근접했다는 응답은 36.8%, 목표치를 초과했다는 답변은 2.5%에 그쳤다.

상반기 실적이 올해 초 계획에 미달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하반기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질문에서는 ‘환율·물가 변동성(31.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내수시장 침체(26.9%)’, ‘중국 봉쇄 등 공급망 병목 지속(14.5%)’,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10.3%)’, ‘자금조달 여건 악화(10.3%)’ 순으로 답했다.

민선 8기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에 대해 67.0%와 10.0%가 ‘별로 기대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다소 기대한다’거나 ‘기대한다’는 응답은 22.3%와 0.7%였다.

민선 8기 지자체가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51.2%), 입지·시설·환경 관련 규제 해소(48.8%), 외자·기업 투자유치(42.1%),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16.5%), 지역대학지원 등 인력양성(10.7%) 등을 들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생산원가 상승과 환율변동성 확대, 고물가 등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원자재 안정, 세제 개선지원,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11일 열린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2022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식에서 서성철 기아 오토랜드 광주 총무팀장이 광주시교육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 제공

기아 오토랜드 광주,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

지역사회 성장세대 육성 목표

예술교육에 1억 6천만원 지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11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꿈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재능 육성을 위한 ‘2022 기아챌린지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기아챌린지 사업’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9년 째 후원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는 토크·문화콘서트, 체험 아트랜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Dream 콘서트와 퓨전 국악 교육프로그램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Dream(드림) 콘서트는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및 문화 콘텐츠 경험 제공을 통한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자신의 꿈을 찾고 도전하는데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교육복지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퓨전 국악 교육 프로그램은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30회에 거친 난타 교육을 진행, 12월 제작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후원금 전달 행사에는 서성철 기아 오토랜드 광주 총무팀장이 참여해 1억 6,000만원의 후원금을 안석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과 김현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오지현 기자

대우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2조 돌파

리모델링·소규모정비사업 비중 확대

대우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9일 열린 총회에서 수원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사업’과 서울 ‘창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각

각 선정됐다.

두 사업지를 합치면 총 2,143세대 규모로, 수주액은 약 5,934억원이다.

이번 수주로 대우건설은 지난 5월부터 총 8개 구역에서 2조2,006억원의 누적 수주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4조원에 육박하는 수주액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전통적인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리모델링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리모델링사업팀 신설을 시작으로 리모델링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우수 중기 76.9% “올해 채용 계획 있다”

1천개사 대상 조사…평균 4.3명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참 관측은 중소기업’에 등재된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채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76.6%의 기업이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응답한 기업들은 평균 4.3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조업종의 ‘생산’ 직무(68.6%) 채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력직선호(52.6%) 경향이 드러났다.

‘2022년 인력현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57.0%)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응답했으며 70.7%는 지난해 필요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기업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인원 비중은 필요인원의 약 82.9%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대다수(92.2%)가 인제 채용 시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으며 채용절차 애로사항으로 필요인력에 비해 입사지원자 부족(47.2%), 합격 이후 퇴직·이직으로 인한 근속 실패(21.7%), 지원자의 직무역량·성향 판단착오(18.0%) 등을 손꼽았다.

응답 중소기업은 인제 선발 시 활용하는 채용 절차로 자기소개서, 증명서, 과제제출 등 서류전형(82.0%)과 발표, 토론, 심층 인터뷰 등 면접전형(40.9%)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NCS, AI면접 등 별도 검증수단의 활용비중은 0.8%에 그쳤다.

/홍승현 기자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 출시

전비·주행성능·승차감 향상

금호타이어가 전기차용 타이어 ‘마제스티9 SOLUS TA91 EV’와 ‘크루젠 HP71 EV’를 출시한다.

〈사진〉

전기차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에 비해 낮은 회전저항, 저소음, 높은 접지력과 내마모성 등이 특징으로, 최근에는 핸들링과 같은 드라이빙 퍼포먼스에도 초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승차감 및 제동성능 극대화를 위해 고분산 정밀 실리카가 적용된 EV 최적 컴파운드를 사용했으며, 일반 제품 대비 마모성능과 제동력 등을 대폭 개선해 주행안정성도 높였다.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딥플(dimple)설계로 분산시키는 타이어 소음 저감기술도 적용,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행 및 마모성능도 향상시켰다.



이와 더불어 타이어 내부에 폼이 부착된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옵션사항으로 마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금호타이어의 소음 저감 신기술인 흡음기술(K-Silent)이 적용된 이 타이어는 오는 8월 이후부터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